

“고유정, 의붓아들도 살해”... 검찰 사형 구형

어제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 결심 공판

고씨 최후 진술 “의붓아들 절대 내가 죽이지 않았다” 1심 전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1부(양정욱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씨는 자신의 살해유구를 종속시키기 위해 3개월 사이 2명을 살해하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치게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은 너무 가벼운 처벌일지도 모르지만 죄형 법정주의에 맞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집에서 현 남편과 고씨가 잠을 자는 사이 의붓아들(당시 만 4세)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된 것이라면 살해동기가 있고, 당시 잠에서

깨어 있었던 고씨가 범인일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의붓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고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점, 미국립의학도서관 의학논문 1500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세계적으로 만 4세 아이가 잠자던 성인의 몸에 눌러 사망한 적이 없는 점, 남편의 모발에서 고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나온 점 등을 들었다.

고씨는 결심공판에서 자필로 작성한 5~6장 분량의 최후 진술서를 읽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씨는 의붓아들을 이름을 댈 뒤 “절대 죽이지 않았다”면서 “집 안에 있던 두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 남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씨는 “죽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고씨는 전 남편과 유가족에게는 “죄송하다, 사죄드린다”고 사과하면서도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27일까지 펜션에 머물며 자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손괴)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15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급식소 손가락 절단 ‘산업보건안전위’ 열린다

교육공무직 노조-제주도교육청 이달 30일 개최

속보=제주 학교 급식소 노동자들이 음식물쓰레기감량기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본보 10일자 4면·11일자 5면, 12일자 4면, 15일자 4면)한 것과 관련 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에 따르면 제주도육청과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오는 30일 도교육청에서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사용자) 대표는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노동자 대표는 홍정자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부지부장으로, 노사 각각 6명의 위원을 선정, 참여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정과 더불어 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 안전 대책 마련, 학교 급식소 폭염 대책 마련 등의 안전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는

최근 2년동안 도내 학교 급식소에서 노동자들이 음식물 감량기를 다루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구체적인 사고 현황은 2018년 10월(베인·손가락 1개 마디 절단), 2019년 5월(오른쪽 검지 절단·봉합 실패), 12월(오른쪽 중지와 약지 골절·손가락 퍼지지 않는 장애 발생), 올해 5월 22일(손가락 1개 절단, 3개 골절·회복 여부 미지수) 등이다.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환영한다”며 “도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 나선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도 “학교 내에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4건의 사고 중 3건은 같은 회사가 만든 감량기”라면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도, 노무라입깃해파리 대책본부 운영

속보=본보의 ‘제주바다 노무라입깃해파리 비상’ (17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부터 노무라입깃해파리 대책본부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16일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따르면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동쪽해안에서 발생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역으로 유입되며 촉수는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

도 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는 20명, 4개 상황반으로

구성됐다. 대책본부는 어업인 피해 예방 지도와 각종 상황처리, 해파리 피해저감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어업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해파리 제거 및 복구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남해안 해역과 제주~고흥해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해 해파리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및 입수통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백영탁기자



바닷속 환경정비 17일 제주시 한림항내에서 제주해경과 민간자원봉사자들이 나와 항내 어업용 폐기를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희민기자

“제주외고 이전 위한 공론화 즉각 철회하라”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회·에월읍 고성2리 마을회(외고 소재지)는 1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문 교육감 공약을 위해 추진되는 제주외고 이전을 위한 일방적 공론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석문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제주외고 일관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제주외고 학생,

학부모, 고성2리 주민들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이 따른 것이지만, 도교육청의 공론화는 이러한 교육내용에 대한 고민은 없이 오직 학교 이전을 통한 신제주권 일관도 수호 충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이석문 교육감이 신제주권 학교 신설 공약이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내세우며 제주외고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은범기자 sebi1119@ihalla.com

“대출 갈아타면 저금리” 보이스포싱법 잇따라 구속

저금리로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보이스포싱 조직원이 잇따라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55)씨와 B(27)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부터 6월 초 사이 국내 신용카드사 직원이라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포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제주도민 1명도 포함돼 있다.

A씨는 “기존에 대출 받은 돈을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낮은 이율로 한도를 높여 추가 대출

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이른바 대한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

또 B씨는 A씨처럼 비슷한 대한 대출 사기 수법을 동원한 또 다른 보이스포싱 조직에게 올해 1월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이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다시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조직에 속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명으로 1000만원을 뜯겼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대형은행 또는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메신저로 접근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자신들에게 상환하라는 방식의 범죄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실습위해 제주찾은 대학생 오토바이 타다 사고로 숨져

실습차 제주를 찾은 대학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로 숨졌다.

16일 밤 11시55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펜션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A(19)군이 펜션

인근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인천에 거주하는 A군은 지난 14일 레저 스포츠 관련 대학 실습수업을 위해 제주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현영총기자

그랜드보청기

가정의달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전브랜드 50~60%대할인!!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수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

제주시 서귀포시 전지역 방문 관리 서비스
보청기 모든 제품 보상판매 서비스

※ 세계금연의날 기념 청각장애 및 흡연가 이신분들
금연카드 무료로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금연피이프, 사탕, 가그린, 구취제거제, 은담, 비타민C)

NAVER 그랜드보청기 ·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백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웅웅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양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

제주도정 소식

도내 만65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안내
○ 지원내용 : 교통비 10만 원(1회, 신청인 본인연의 계좌입금)
*일몰기면허 제외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710-2416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소득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 지원내용 :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
*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내), 2차 50만원 지급
(7월 중)

○ 신청기간
- (현장접수) '20. 6. 22 ~ 7. 20
(고용센터, 6.22~7.3은 5부제로 운영)
- (온라인) '20. 6. 1. ~7. 20, covid19.ei.go.kr

○ 문의 : 콜센터(고용노동부) 1899-4162, 1899-9595
제주고용센터(710-4482-3,4394-5)
제주고용센터 서귀포지소(710-4438-9)